

- 주요 뉴스: 미국 백악관 목표 달성 시 전쟁 종료, 이란은 항전 및 호르무즈 봉쇄 의지 천명
 - ECB 주요 인사, 이란 전쟁 불구 금리 조정 신중할 필요, 독일 1월 수출은 감소
 - 중국 1~2월 수출, 전년동기비 큰 폭 증가. 인민은행 총재는 '강위안' 지지
 - 일본은행 나카무라 이사, 국채매입 축소 규모는 당분간 계획대로 추진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이란 전쟁 조기 종식 기대와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유가 급락 불구 여전한 호르무즈 해협 불안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 등으로 1.9%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전쟁 조기 종식 기대, 차익 매물 출회 등으로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대규모 회사채(Amazon) 공급 전망 등이 배경
독일은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ECB 금리동결 전망 등으로 2bp 하락
- ※ 뉴욕 1M NDF 종가 1472.0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73.3원, 0.27% 상승). 한국 CDS 하락

		3/10일	3/9일	전일대비			3/10일	3/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781.5	6,796.0	-0.21%	국채 금리 10y	미국	4.16%	4.10%	+6bp
	유럽	606.12	594.92	+1.88%		독일	2.84%	2.86%	-2bp
	중국	4,123.1	4,096.6	+0.65%		영국	4.55%	4.65%	-9bp
	일본	54,248	52,729	+2.88%	CDS 5y	한국	27bp	28bp	-1bp
	한국	5,532.6	5,251.9	+5.35%		중국	45bp	46bp	-1bp
환율	달러지수	98.93	99.18	-0.25%	위험 지표	EMBI+	-	286	-
	유로화	1.1611	1.1636	-0.21%		VIX	24.93	25.50	-2.24%
	엔화	158.05	157.67	-0.24%		WTI유	83.45	94.77	-11.94%
	위안화	6.8685	6.9070	+0.56%	원자재	구리	590.4	580.1	+1.78%
	원화	1,469.3	1,495.5	+1.78%		금	5,192.0	5,138.5	+1.0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백악관, 목표 달성 시 전쟁 종료. 이란은 항전 및 호르무즈 봉쇄 의지 천명

- 백악관은 對이란 군사작전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그리고 이란이 자신들의 선언 여부와 무관하게 완전하고 무조건적 항복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때 전쟁이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이란의 명시적 항복 선언이 없더라도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 대화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된 조건이 중요하다고 언급
- 미국의 라이트 에너지장관은 자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했다고 밝힌 SNS 게시물을 삭제.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백악관은 유조선을 호위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며, 관련 여파로 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등. 이후에 유가 급등은 다소 진정
-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오늘(현지 시간 10일)이 가장 격렬한 對이란 공습의 날이 될 것이며, 공습은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 백악관은 현재 이란의 미사일 제조능력 파괴를 위한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은 비공식적으로 전쟁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
-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략비축유 방출 여부를 검토하는 긴급회의를 소집. G7의 에너지장관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유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관계자들은 전략비축유 방출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
- 이란 의회 의장은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이란 혁명수비대도 전쟁 종결은 자신들이 결정하며, 걸프 지역에서 단 1리터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외교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모든 유조선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면서 해협 봉쇄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 이란군은 드론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내 석유 및 정유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
-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한 걸프 연안 국가들의 석유 감산 규모는 일일 670만배럴이며, 이는 세계 공급량의 6% 수준. 일부에서는 최근 유가의 단기 고점 징후가 발생했지만, 경우에 따라 배럴당 134~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BofA). UAE는 자국의 최대 규모 루와이스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2월 기존주택판매, 예상치 상회. BoA는 유가 상승 속 금리인하 가능성 제기
 - 2월 기존주택판매는 409만채(연환산)로 전월비 1.7% 증가하며 예상치(-1.3%) 상회. 모기지금리 하락 등이 이번 결과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
 - 한편, BofA는 유가가 상승한다고 연준이 자동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연준에게 물가와 함께 고용도 중요하기에 유가가 상승할 경우 금리인상 혹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모두 증가할 수 있다고 평가
- ECB 주요 인사, 이란 전쟁 불구 금리 조정 신중할 필요. 독일 1월 수출은 감소
 -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총재 심카스 위원은 이란 전쟁 불구 당분간 현행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인 뮐러 위원도 에너지 충격의 영향을 확인해야 하며, 금리 조정을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 한편 EU의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의脫원전 정책이 실수였다는 의견 제시
 - 독일의 1월 수출은 전월비 2.3% 줄어 `24년 5월 이후 최대폭 감소. 이는 중국과 유럽의 수요 감소 등에 기인. 영국의 2월 소비지출은 전년동월비 1.1% 증가했으나 전월(+2.7%)에 비해 증가세 둔화
- 중국 1~2월 수출, 전년동기비 큰 폭 증가. 인민은행 총재는 '強위안' 지지
 - 1~2월 수출은 6565.8억달러로 전년동기비 21.8% 늘어 예상치(7.2%) 큰 폭 상회. 對美 수출이 감소한 반면, 동남아시아 및 유럽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 한편, 인민은행의 판공성 총재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안화 절하를 유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
- 일본은행 나카무라 이사, 국채매입 축소 규모는 당분간 계획대로 추진
 - 나카무라 이사는 계획대로 국채매입 축소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예상 가능한 형태로 국채매입 규모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부연. 작년 6월 일본은행은 금년 4월부터 국채매입 축소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3/11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및 독일 2월 소비자물가지수, 연준 보우먼 이사 발언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글로벌 금융시장, 이란 전쟁·신용시장 불안 등 동시다발적 충격에 직면 - 블룸버그

(Market Cracks Widen as War, AI and Credit Fears Collide at Once)

- 글로벌 금융시장은 트럼프 관세정책 이후 가장 심각한 변동성 압박에 직면. 이는 ▲이란 전쟁發 유가 상승 ▲AI 발전에 따른 산업별 상이한 성장 전망 ▲非은행권 중심의 부실 신용대출 위험 증가 ▲미국 고용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 개별 요인은 대응 가능하지만, 동시다발적 요인은 하나의 정책으로 대응이 불가능
- 한편, 이란 전쟁 이후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 트럼프는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실제 실행 여부는 불확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증시 고평가 상황에서는 작은 위기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 이란 전쟁에 따른 高유가로 시험대 직면 - 블룸버그

(This Oil Shock Is Testing the Limits of US Energy Dominance)

- 트럼프는 에너지 지배력을 강조하며 이란을 공습. 이는 석유 순수출국으로 변모한 덕분에 중동發 유가상승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다는 의미.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급등하며 취약점 노출
-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휘발유 가격 상승에 의한 소비자 부담을 고려하여 화석연료 반대 입장을 번복한 것처럼, 트럼프 역시 전기차 등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 재조정의 압박에 직면할 소지. AI 관련 에너지 요금 감면 공약도 실행되기는 어려울 가능성. 이는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 한계를 시사

■ 투자자의 주요 중앙은행 금리인상 전망, 유가 충격 증폭 등으로 강화 - Financial Times

(Investors bet central banks will respond to oil shock with rate rises)

- 중동發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은 주요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재평가. 이에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인하 전망이 후퇴(2~3회→1~2회). ECB의 경우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즉각적 대응은 자제
- 올해 2회 금리인하가 예상되었던 영란은행은 동결 전망이 강화되는 동시에 인상 가능성(30%)이 상승(T Rowe Price). 분석가들은 '22년 인플레이션 급등 당시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감안해 중앙은행이 개입에 적극적일 수 있다고 평가(Oxford Economics)

■ **미국, 이란 전쟁 종전에 대한 더 나은 해답을 제시할 필요 - 블룸버그**

(How does Iran war end? The US needs a better answer)

-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넘었지만 양측 모두 적대 행위를 멈출 기미가 없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면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적의 완전한 패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혀 구체적 종전 구상은 여전히 불투명
- 미국 국방부는 이란의 핵개발 저지 및 해군·미사일 전력 파괴 등을 목표를 제시했으나 공습만으로는 달성이 어렵고, 성공하더라도 미군은 막대한 비용 부담에 직면. 에너지시장 불안, 동맹 갈등, 러시아 반사이익 등도 우려 요인
- 백악관은 이제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전쟁 목표를 설정할 필요. 지상군 투입 없이 이란 정권 붕괴는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란의 안정 유지 속 군사적 억제보다 적절한 협상 해법이 될 가능성. 아울러 자국 의회와 국민에게도 설득력 있는 종전 구상을 제시할 필요

■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 및 관련 대책의 한계, GDP 대비 부채한도 제한이 요구 - 블룸버그**

(Staggering US Deficits Call for a Debt-to-GDP Limit)

■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종료 시점 합의, 상이한 목표 등으로 난관 예상 - The Economist**

(America's war aims may be diverging from Israel's)

■ **미국 내 중동유가 상승 영향, '27년 본격화 예상. 원유 생산 전망도 상향 - 블룸버그**

(US Raises 2027 Oil Output Forecast After Prices Soar on Iran War)

■ **금융시장, 트럼프의 조기 종전 신호에 안도.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 - Financial Times**

(The thing that everyone expected to happen has happened)

■ **유럽의 중앙은행, 고유가의 물가 영향과 소비 모두 중요하기에 금리인하 가능성 상존 - WSJ**

(For Europe's Central Banks, the Energy Spike Isn't a Straight Rerun of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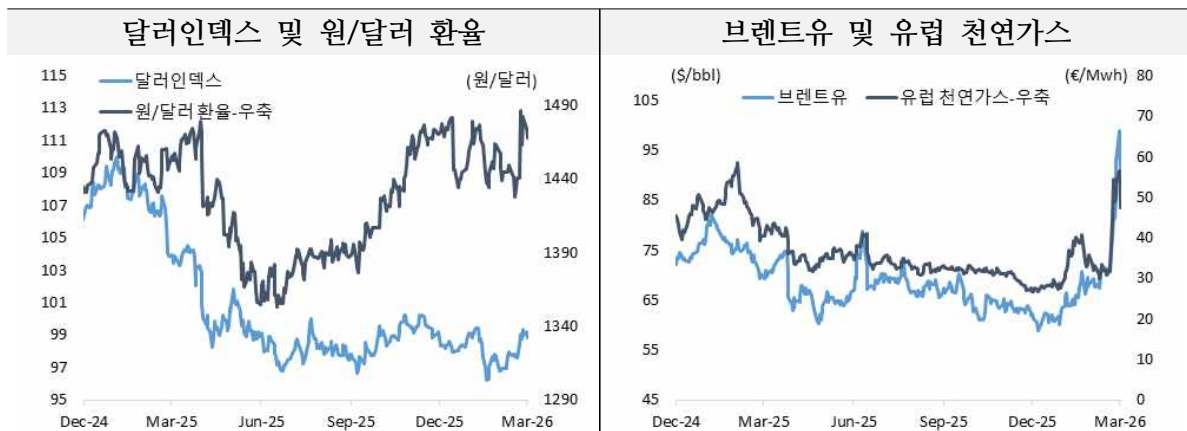
■ **유로화 약세, 고물가 영향·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 등으로 지속될 가능성 - 블룸버그**

(The Euro Is Having a Worse War Than Its P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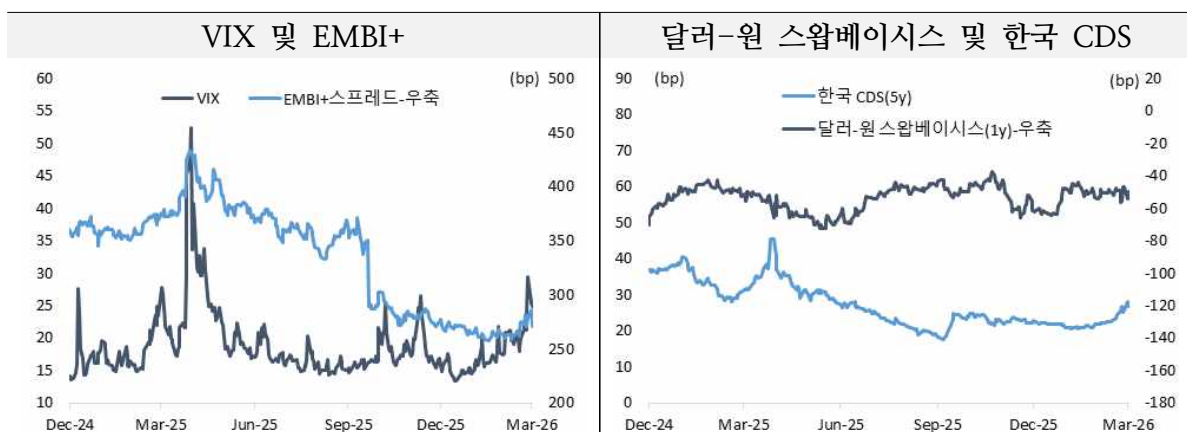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